사진으로 보는 고양시 이모저모

정리 편집부

시는 10월 7일 시청 열린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식을 열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연대 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 시 앞으로 7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1.5℃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폭염과 장마, 식량위기 피해는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 기후위기 극복 동참이 필요하다.

#1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개최

#2 통일로 왕복 4차로 개선공사 완료

통일로는 왕복 4차로의 간선도로로 버스와 좌회전 차량의 정차로 인해 교통이 혼잡했다. 특히 두포동 입구와 고골입구 삼거리 등 5개 교차로에서 교통정체가 심했다. 시는 교차로에 좌회전 포켓차로를 확보하고 우회전 전용차로와 버스베이를 신설했다.

#3 시민과 함께하는 드라이브 인 응원 진행

10월 9일과 12일 양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대표팀'과 '2020도쿄올림픽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시민이 함께한 드라이브 인 응원이 진행됐다. 1차전은 덕양구 삼송마을 18단지 앞 공터에서 진행됐고 2차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돼 현장응원으로 진행됐다.

10월 10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가 만드는 포스트 코로나, 고양'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장비 지원, 고양페이와 연계한 청소년 문화공연 할인, 고양시 명소를 재현한 게임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4 릴레이 참여예산 토론회 시작… 첫 주자는 청소년

#5 2021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가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고양시 체육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년 고양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2021년 예산 수립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학교 치유텃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치유농업 강사 파견뿐만 아니라 텃밭조성 재료와 교육물품을 지원해 농업의 치유기능을 접목한 텃밭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031-8075-4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6 학생 대상으로 학교 치유텃밭 교육 열어